

중국의 대외정책과 해외 유학생 정책 고찰

황지유* · 김병철**

【목 차】

1. 들어가는 말
2. 중국의 시대별 대외정책과 유학생 정책의 변화
 - 1) 개혁개방 이전 : 국가 간 협정에 의한 유학생 교육
 - 2) 덩샤오핑 시대 : '평화와 발전'과 자비유학생 교육 시작
 - 3) 장쩌민, 후진타오 시대 : '신안보관'과 자비유학생 교육의 발전
 - 4) 시진핑 시대 : '대국관계 신모델'과 '일대일로' 유학생 교육
3. 나가는 말

【초록】

본 논문은 중국의 대외정책과 유학생 정책과의 관계를 살펴보았다. 먼저, 중국의 시대별 주요 대외 이슈 및 그것의 '구성요소' 중 하나로서의 유학생 정책을 통시적으로 살펴보았는데, 이러한 연구는 국내와 국외에서도 정리가 되어있지 않은 부분이기도 하다. 즉 신중국 수립부터 개혁개방 이전 시기를 시작으로, 덩샤오핑 시대, 장쩌민·후진타오 시대, 시진핑 시대까지, 신중국 설립 이후 70여 년 간의 중국 유학생 정책이 목표로 한 지향점을 파악해 보았다. 중국의 유학생 정책은 폐쇄에서 개방으로, 국가 간 조약에 의한 교환학생 중심에서 자비유학생 중심으로 큰 전환을 보이며 현재에 이르고 있다. 특히, 시진핑 시대에 이르러서는 '일대일로' 구상과 연계하여 선상 국가를 새로운 유학생 유치 공급원으로 삼고자 하는 자비유학생 유치 전략도 엿보이고 있다. 마지막으로 한국과 중국의 대외정책과 유학생 정책과의 관계를 비교해 봄으로써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을 파악해 보았다.

【키워드】 중국, 대외정책, 유학생 정책, 유학생 교육, 개혁개방, 덩샤오핑 시대, 장쩌민·후진타오 시대, 시진핑 시대, '일대일로', 신북방정책, 신남방정책

* 제1저자. 東新大學校 社會文化大學 國際語文學部 中國語學專攻 助教授 (jyhwang@dsu.ac.kr)

** 교신저자. 中國人民大學 勞動人事學院 社會保障學科 副教授 (jinbingche@ruc.edu.cn)

1. 들어가는 말

세계 각국은 외국 유학생을 유치하고 그 규모를 확대하기 위해서 다양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이러한 정책은 한 나라의 교육환경 개선과 같은 국내적인 요인, 안보 및 경제 무역과 같은 대외적 요인, 그리고 이에 따른 국가의 대외 정책 방향과 밀접한 관련을 갖는다. 따라서 유학생 교육은 다양한 국내외적 요인의 변화에 따라 늘 변화되어 왔으며, 향후에도 마찬가지로 일 것으로 생각된다. 중국은 신중국 수립 초기부터 대내외의 정치, 안보, 경제 등 다양한 위협에 노출되어 있었기 때문에 글로벌 네트워크를 강화, 확대하는 수단 중 하나로 유학생 교육을 적극 활용해 왔다. 초기 동구권 국가와의 교류협력 협정에 기반 한 유학생 교육에서부터 최근 ‘일대일로’ 전략에 따른 유학생 교육에 이르기까지 국가적 차원의 대외정책과 밀접한 연관관계를 가지고 있다. 이 때문에 중국에서는 유학생 정책을 고등 교육 정책의 보충이자 대외정책의 중요한 구성요소로 인식하고 있는 것이 일반적이다.¹⁾

“대외정책은 국제 체제 속의 구성원인 한 국가가 그 속에서 차지하는 비중, 국내적 과정과의 연계 등을 포함하는 전 과정에 의해 결정되어지기 때문에”²⁾ 중국의 대외정책 또한 대내외적인 요인에 많은 영향을 받고 있음은 물론이다. 중국 정부의 대외정책과 유학생 정책 그리고 정부장학금과의 관계는 매우 밀접하여, 국내외의 여러 정책 방향에 따라 유학생 정책이 설정되고, 정부장학금이 이를 뒷받침하는 형태로 작동되고 있다. 그러므로 중국의 유학생 교육이 어떻게 변화되어 왔고, 현재 어떠한 위치에 있는지를 좀 더 정확히 파악해 보기 위해서는 대외정책과의 연계 고찰이 필요하다 하겠다. 혁명을 통해 사회주의 국가를 설립한 중국은 지난 70여년의 신중국 유학생 교육의 역사 속에서 각 시대의 안보 및 국제관계, 대외 경제의 필요성에 의해 대외정책 방향을 변화시켜왔고, 이러한 정책의 ‘영도’ 하에 유학생 교육 또한 변화되어 왔다. 특히, 현재 시진핑 시대에 들어서서는 ‘일대일로’ 전략으로 불리는 강력한 대외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일대일로’ 전략에서의 유학생 정책을 살펴봄으로써 시진핑 시대의 유학생 정책을 보다 정확하게 파악해 볼 수 있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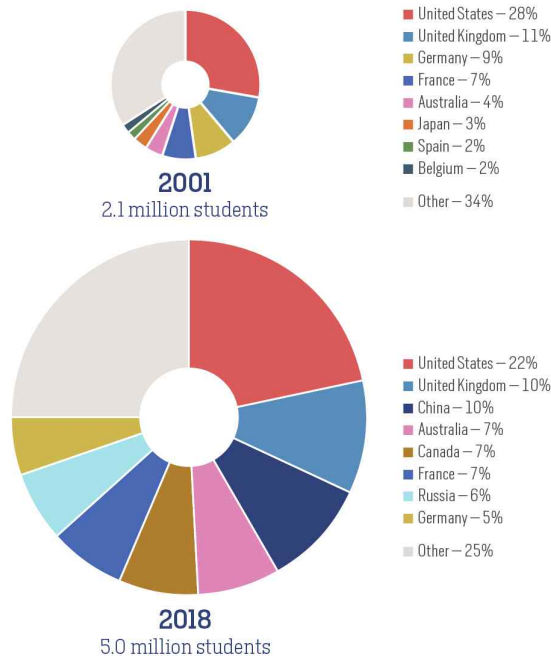
중국의 유학생 교육은 지속적으로 양적 성장을 거듭한 결과, 세계적인 유학 대국으로 발전했다. 신중국 건국 69주년이 되는 2018년을 기준, 중국은 이미 아시아 최대이자 세계 주요 유학 대상국 8개 국가 중 Top3에 속하는 유학 대국이다. 중국은 2000년대 초반 하더라도 주요 유학 대상국 순위에 들지 못했다. 2001년 기준 중국 내 해외유학생 수는 21만 명에 불과했지만, 2018년에는 48만 명으로 2배가 넘는 증가폭을 기록하면서 양적으로 큰 성장을 이루었다. 영어권의 대주주이자 자본주의 진영의 대표주자인 미국과 영국은 변함없이 1위와 2위를 지키고 있지만, 그 사이 세계 유학 시장의 판도에도 적지 않은 변화가 발생하여 벨기에와 스

1) 陳宇·曲鐵華, 「我國來華留學生教育政策變遷的路徑與特點——基於1950~2012年政策文本的分析思考」, 『人民論壇·學術前沿』, 第24期, 2016, p.23 ; 李寶貴·尚笑可, 「“一帶一路”背景下來華留學教育新使命」, 『現代教育管理』, 第11期, 2017, p.52 ; 鸞鳳池·孫偉, 「“一帶一路”國家來華留學生教育的意義、問題及對策」, 『江蘇師範大學學報』, 第1期, 2018, p.7 등 많은 논문들에서 이러한 견해를 견지하고 있음.

2) 이태환, 『중국의 국내정치와 대외정책』, 한울아카데미, 2006, p.232.

페인은 순위에서 탈락했고, 비영어권의 사회주의 국가인 중국과 러시아가 급부상하였다.³⁾ 이는 냉전시대의 종말과 신자유주의 시대의 도래와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 즉 유학의 목적지 선택에 있어서 더 이상 이데올로기가 주요한 요소로 작용하지 않게 된 것이다.

<Top Host Destinations, 2001 & 2018>



2018년 중국 교육부 통계에 의하면, 중국에서 수학하는 유학생의 수는 482,185명으로 이 중 학위 과정에 있는 학생이 258,122명으로 전체의 52.44%를 차지한다. 이는 2017년보다 16,579명이 늘어나 6.86% 증가한 수치이다. 국적별로 보면, 전체 196개 국가 또는 지역에서 해외 유학생이 중국을 찾았으며 전국의 31개 성(자치구, 직할시 포함)에 있는 1,004개 대학에서 수학하고 있다. 그중, 베이징(北京), 상하이(上海), 장쑤(江蘇), 저장(浙江), 랴오닝(遼寧) 등 동부 지역 5개 성(시)의 학생 수가 256,033명으로 전체의 52%를 차지하고 있다. 아울러 전체 유학생 중 석사, 박사 과정의 학생이 85,062명으로, 2017년에 비해 12.28%이 증가하여 유학생 교육의 질이 더 높아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유학생 중 중국 정부의 장학금을 받은 학생은 63,041명으로 전체의 12.81%를 차지하고 있다.⁴⁾ 학위과정에 있는 학생이 50%를 넘어서는 것은 중국의 유학생 교육이 양적 성장뿐만 아니라 질적 성장도 함께 이루어 나가고 있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성과는 중국어 교육의 수요뿐만 아니라, 중국이라는 나라가 갖고 있는 에너지

3) *Top Host Destinations, 2001 & 2018*, Project Atlas, 2018 ; UNESCO 2018 (<https://www.iie.org/Research-and-Insights/Project-Atlas/Explore-Data/Current-Infographics> [2019.07.20])

4) 「2018年來華留學統計」, 中國教育部, 2019.04.12. (http://www.moe.gov.cn/jyb_xwfb/gzdt_gzdt/s5987/201904/t20190412_377692.html [2019.07.27])

와 잠재력, 유학생 유치를 위한 중국 정부의 노력 등 다양한 요소들이 결합되어 나타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세계 여러 나라들이 해외 유학생 유치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가운데, 1990년대 이후에는 국가별로 유학생을 유치의 목적이 표현은 다르지만, 대체로 비슷한 지향점을 갖는다. 한국은 외국인 장학생 초청을 통한 지한·친한 인사 육성, 외교개선 및 경제발전에 활용, 우수 외국인 유학생 유치·관리를 통한 우리나라 고등교육의 대외 이미지 제고 등을 유학생 교육의 목적으로 삼고 있다.⁵⁾ 중국의 경우도 이와 비슷하여 우수한 외국인 유학생을 국내 대학으로 유치하여 공부시키고, 졸업 후 취업·정주할 수 있도록 유도하며, 또한 수학 후 이들이 본국으로 돌아가 지중·친중 인사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중국과 지속적으로 우호적인 네트워크를 구축·유지한다는 목적을 갖고 있다. 그리고, 이들을 외교 개선 및 경제 발전에 활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⁶⁾ 그러나 신중국 초기에는 이러한 요인 이외에도 안보와 정치적인 요소가 큰 역할을 하였다. 한 국가의 대외정책과 장학금 정책은 외국인 유학생 유치를 위한 방향 제시와 시행을 위한 수단의 의미를 갖고 있어, 국가적 방향과 목적에 따라 유학생 장학금의 규모를 축소 또는 확대하고, 새로운 대외정책의 수립과 관련하여 새로운 장학금 정책이 만들어지기도 한다. 이처럼 국가 초청 장학금을 통해 해외의 학생과 지식인들에게 그 국가가 추진하는 정책을 홍보하고 수용력 또한 강화시켜 나가고 있다.

지금까지 중국 유학생 교육과 관련하여 여러 연구들이 있었으나, 대부분은 일정한 주제나 일정한 시기를 대상으로 하는 연구들이 대부분으로 통시적으로 대외정책과 연계하여 중국의 유학생 정책을 살펴본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다.⁷⁾ 특히나 신중국 수립 70주년을 맞는 올해의 경우, 중국의 유학생 교육의 변천을 통시적으로 살펴보는 것은 매우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된다.⁸⁾ 특히 시진핑 시대의 대표적인 대외정책인 ‘일대일로’ 구상 까지를 포함하여 해외 유학

5) 백성준은 「우수 외국인 유학생 유치 정책 개선 방향」(『The HRD Review』, 2015.07, p.76.)에서 ‘Global Korea Scholarship 사업’, ‘Study to Korea 2020 Project’, ‘유학생 유치 관리 역량 인증제’ 등 한국의 주요 외국인 유치 정책 중 유학생 유치 목적을 밝힘.

6) 다양한 정책 및 주요 언론의 논설 등에서 유학생 교육의 목적을 설명하고 있다. 중국 교육부, 외교부, 공안부, 「學校招收和培養國際學生管理辦法」(2017) 및 孫其信的「大學應成“一帶一路”科教合作先行者」, 『光明日報』, 2017.05.17. 6판. (http://epaper.gmw.cn/gmrb/html/2017-05/17/nw.D110000gmrb_20170517_3-06.htm [2019.08.10])을 참조함.

7) 지금까지 관련 연구 성과를 살펴 보면, 蒙有華의「當前我國留學教育的現狀、問題及解決思路」, 『當代教育論壇』, 第23期, 2005; 王留栓의「再論我國大力發展來華留學生教育」, 『當代教育論壇』, 第2期, 2008), 耿虎의「來華留學生教育研究的回顧與前瞻」, 『江蘇高教』, 第6期, 2010; 李鵬의「新中國來華留學生教育的發端：緣起、進程與意義」, 『華東師範大學學報』(教育科學版), 第3期, 2016; 송광훈·황지유의「한중 유학생교육의 문제점 및 발전전략 고찰」, 『중국인문과학』, 제52집, 2012 등이 있는데, 주로 중국 내 유학생들의 현황 및 문제점과 해결책, 그리고 유학생 교육의 발단과 연원 및 진행과정, 의의에 대하여 살펴보고 있으며, 夏青, 「來華留學生中國政府獎學金制度現狀及貨幣化改革芻議」, 『科技通報』, 第3期, 2011; 劉慧, 「來華留學生獎學金制度現狀分析」, 『高校教育管理』, 第4期, 2008 등 유학생에게 주어지는 장학금에 대한 연구는 이루어지고 있으나, 국가 대외 정책의 일환으로서의 유학생 정책에 대한 연구는 많지 않은 상황이다.

8) 중국의 해외유학생 교육의 시기 구분과 관련하여서는 연구자에 따라 2, 3, 4, 5, 6 시기로 나누고 있다. 개혁개방(1978년) 시기를 큰 전환점으로 보는 데에는 연구자들이 대체로 동의하고 있으나 세부적으로는 다양한 견해를 보이고 있다. 耿虎, 「來華留學生教育分期及其相關問題探析」, 『高教探索』, 第4期, 2010, pp.93-94. 표1 참조. 본고에서는 시대별 대외정책과의 연관성을 살펴보기 위해 중국의 최

생 교육을 어떻게 인식하고 어떠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이에 본고에서는 중국의 시대별 주요 대외 이슈 및 이에 대한 정책, 그리고 이것의 ‘구성 요소’ 중 하나로서의 유학생 정책이 어떻게 변화되어 왔고 어떠한 작용을 했는지에 대해 시진핑 시대까지 통시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마지막 부분에서는 한국과 중국의 대외정책과 유학생 정책과의 관계를 비교해 봄으로써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을 파악해 보겠다..

2. 중국의 시대별 대외정책과 유학생 정책의 변화

20세기 신중국의 성립은 사회주의 국가의 탄생이라는 큰 이슈를 남겼다. 이로 인해 중국은 자유주의의 국가들과 사회주의 ‘혁명과 전쟁’의 시대에 놓여 져 있었으며, 이러한 상황에서 대외정책은 우방국인 소련, 북한 등 사회주의 국가들과의 협력을 강화하는 데 초점이 맞추어져 있었다. 그러나 덩샤오핑의 개혁개방과 1991년 소련 붕괴로 인해 중국의 대외정책도 전쟁이 아닌 분쟁의 평화적 해결과 국가 이익을 중시하는 양상이 나타나며, 장쩌민 시대 이후로는 국가의 대외정책의 패러다임을 안보가 아닌, 정치, 경제, 사회적 이익과 안보를 동시에 고려하는 새로운 대외정책을 활용하였고, 이러한 기조는 시진핑 정부에 들어서서 더욱 강화되는 추세이다. 이러한 시대적 변화의 흐름 속에서 신중국 수립 이후부터 현재까지 70년 간의 중국의 대외정책을 파악해 보는 것은 큰 의의를 지닐 것이다. 표로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표1> 중국의 안보환경과 대외정책⁹⁾

구분	1980년대 이전	1980년대	1990년대	2000년대	2010년대
정치리더	마오쩌둥	덩샤오핑	장쩌민	후진타오	시진핑
안보환경 인식	전쟁과 혁명	평화와 발전			
		전쟁가피론	다극화와 세계화 과학기술의 진보	9.11 테러 중국의 부상	미국의 군사, 경제 위협 지속
안보 정책	동맹정책	독립자주 비동맹 정책	신안보관	조화세계건설	‘일대일로’ ¹⁰⁾
대외정책	이데올로기 중시 미국의 주적화	전방위 외교 분쟁의 평화 해결 국가이익 중시	주권안보 우선 협력안보 중시 다자주의 책임대국	주권안보 우선 협력안보 중시 적극적 다자주의	중국의 꿈 신형대국관계 경제적 다자주의

고 권력자들의 집권 시기를 중심으로 분장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9) 김예경의 「중국의 안전보장제도와 정책」, 함택영·박준영 편, 『안전보장의 국제정치학』, 사회평론아카데미, 2015, p.422을 참고하여 재구성함.

10) ‘일대일로’는 글로벌 협력을 통한 공동의 이익을 추구한다는 측면에서 대표적 개방과 포용적 대외정책으로 인식되고 있으나 그 근저에는 중국의 에너지안보가 가장 중요한 핵심으로 자리하고 있다. 중국은 미국 등 서방 세계에 의한 중동 원유 단절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 ‘일대일로’를 출범시킨 동력 중 주된 요인이었으며, 주변 국가들과의 에너지 협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고 있다. 2018년 10월 쭈저우에서는 파키스탄, 수단, 터키 등 10여개 국가가 참여하여, “‘일대일로’ 공동 선설 에너지

70여 년 간의 중국의 주요 대외정책의 기조 변화에 따라 중국의 유학생 정책 역시 변화되어 왔음은 물론이다. 그리하여, 중국 정부의 시대별 주요 대외정책과 유학생 교육을 연계하여 살펴봄으로써 그 시대에 중국 유학생 정책이 목표로 했던 지향점을 정확히 파악해보고자 한다.

1) 개혁개방 이전 : 국가 간 협정에 의한 유학생 교육

이 시기는 신중국 건립부터 개혁개방 직전인 1978년까지로, 사회주의 국가가 탄생하여 국제사회가 극한 이념 대립을 하고 있을 때이다. 따라서 새롭게 건설된 중국의 입장에서는 상시적인 자유주의 진영의 안보 위협을 안고 있었다. 특히 중국은 미국을 중국 안보에 위협이 되는 주된 적국으로 설정하고 이에 대비하는 대외정책을 수립하는 데 집중했다. 1970년대에 들어서면서 소련은 마르크스 레닌 이론을 새로운 역사 상황에 맞추어 창조적으로 발전시켜나가야 한다고 주장 했는데, 중국은 이러한 수정주의를 강하게 반대하며 미국과 소련을 위협국으로 상정하고, 반제반수(反帝反修), 즉 반제국주의와 반수정주의를 골자로 한 두 개의 통일 전선을 전개하였다.¹¹⁾

이 시기의 유학생 교류는 주로 교환학생이나 국가 초청 장학금의 형태로 이루어졌다. 대체로 동유럽 등 사회주의 진영과의 국가 간 유학생 파견의 형태가 주를 이루었고, 학비와 생활비는 초청국에서 지원하고 국제 여행비는 파견국에서 부담하는 형태였다. 『중화유학교육사실록』에 따르면, 중국에 최초로 유학생 파견 의사를 전달한 나라는 당시 사회주의 진영이었던 폴란드였고, 1950년 1월 중국 외교부에 공문을 보내 중국과 유학생 상호 교환에 관한 의견을 전달한 것이, 신중국 최초의 유학생 관련 공문이라고 한다. 그리고, 같은 해 4월, 체코 교육부는 체코주중대사관을 통해 1950년 가을부터 1년간 100명의 중국 학생을 파견해 줄 것을 제안했는데, 이중 체코 교육부에서 50명에 대해서는 장학금을 지급하였고, 이와는 별도로 중국-체코 ‘역사언어 연구소’를 설립하여 여기에 중국 유학생 10명에 대해 장학금을 지급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였다.¹²⁾ 이에 대해, 중국 정부는 “체코와 폴란드에 각각 10명의 유학생을 상호 파견할 것을 다시 제안했다”¹³⁾고 한다. 그리고, 외교부 문서를 참고하면, 8월 3일에는 중국과 루마니아가 베이징에서 협약을 체결하고 유학생을 상호 파견키로 했다. 이때의 지원 조건은 유학 기간 중 학비 전액, 교재 구입비, 숙소비, 식비, 의료비를 지원하며 중국 의복과 단체여행비용을 지급키로 했으며, 첫 해에는 양식 음식점을 설립해서 서양음식을 제공하

협력 파트너 관계 장관 공동선언”을 발표했고, (“一带一路”沿线国家进一步深化能源国际合作, 新华网, 2018.10.18. http://www.xinhuanet.com/silkroad/2018-10/18/c_1123579985.htm [2019.9.16.]) 지난 4월에는 30여개 국가의 에너지 장관, 주중대사 등이 참여하여 “‘일대일로’ 에너지협력관계 설립의식”(“一带一路”能源合作伙伴关系成立仪式)을 개최하였다. (“一带一路”能源合作伙伴关系在京成立, 新华网, 2018.04.25. http://www.xinhuanet.com/world/2019-04/25/c_1124417011.htm [2019.09.16])

11) 김예경, 위의 논문, p.424.

12) 李滔, 『中華留學教育史實錄——1949年以後』, 高等教育出版社, 2000, p.76.

13) 駱亦粟, 『在風起雲湧的年代裏(1949-1989)』, 新華出版社, 2011, p.5.

고, 이 외에도 매달 좁쌀 약 100kg에 해당하는 용돈을 지급기로 했다. 이러한 지원은 루마니아에 유학하는 중국 학생들에게도 동등하게 지원되었다. 1950년 12월 루마니아의 5명의 유학생이 먼저 베이징에 도착했고, 1952년 3월까지 루마니아, 불가리아, 헝가리, 폴란드, 체코슬로바키아의 33명의 유학생이 8차에 나누어 칭화대학에서 중국어와 중국 역사를 공부했다고 한다.¹⁴⁾ 중국 정부는 이들 유학생의 관리와 교육, 지원 등의 업무를 칭화대학에 위탁하였는데, 이 대학에서는 「칭화대학 동유럽 교환학생 중국어 진수반 임시 규정」과 「칭화대학 동유럽 교환학생 중국어 진수반 2년 교학계획(초안)」에 기초하여, 교육부의 비준을 거쳐 정식으로 시행했는데, 이것이 신중국 최초의 유학생 관련 규정이다.¹⁵⁾ 1949년에 설립된 신중국으로서는 1950년에 찾아온 이들이 중국 최초의 해외 유학생이며, 이때 수립한 「규정」과 「계획」이 향후 유학생 규정과 커리큘럼의 기초가 되었고, 이 때 지급된 경비가 유학생 장학금의 시초가 된 것이다.

1952년 9월에는 동유럽 학생들의 유학 배정 대학을 베이징대학으로 옮기고, 명칭도 ‘베이징대학 외국 유학생 중국언어 진수반(北京大學外國留學生中國語言專修班)’으로 변경한다. 이때 2가지의 변화가 일어나는데, 하나는 칭화대에서 베이징대로 교육 장소를 변경한 점이고, 또 하나는 당초 ‘동유럽 교환학생(東歐交換生)’으로 되어 있던 과정명을 ‘외국 유학생(外國留學生)’으로 바꾼 점이다. 이는 동유럽뿐 아니라 다른 나라 유학생들도 참여하게 됨으로써 일어나게 된 변화로써 동유럽 학생(44명, 일부 먼저 귀국)을 제외하고도 북한 학생 29명, 몽골 학생 2명이 더 추가되었다.¹⁶⁾

이 시기의 유학생 교육의 특징은 수교 관계가 되어 있는 사회주의 국가 간 협약을 통한 교환학생 위주로 이루어졌으며, 국가 간 협약에는 유학생의 인원, 대학, 학습 내용과 기간, 제공되는 경비, 입학 시간 등을 명기함으로써 지원 대상과 조건, 기간, 교육 내용 등을 명확하게 했다는 점이다. 이는 당시 현대적 의미의 유학생 교육 경험과 국가재정이 부족한 상황, 그리고 국제적인 고립 등 여러 상황에 비추어 취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었다고 할 수 있다. 건국 초기의 중국은 여러 여건이 좋지 않았지만 이들 사회주의 국가에서 파견되어 온 학생들을 통하여 중국에 우호적인 인사를 육성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으며, 실제로도 이들은 신중국 외교 관계를 촉진시키는 역할을 하였다. 이러한 유학생 정책은 1960년대 ‘문혁’을 맞아 암흑기를 맞기도 했지만, 문혁이 끝나고 1975년 5월, 교육부, 문화부, 문화부 그리고 공안부가 공동으로 「외국 유학생 노동 시행 조례(수정본)(外國留學生工作試行條例(修訂稿))」를 발표하면서 다시 원래의 교육 본연의 내용과 국제 협력의 정신을 회복할 수 있었다.

한편으로 중국은 미국과의 관계 개선에 나서 1972년 핑퐁외교를 시작으로 미중 관계 정상화를 시작하여 1979년에는 정식으로 수교를 맺었으며, 이러한 글로벌 정세의 변화에 따라 유

14) 「外交部函(致羅馬尼亞駐華大使館關於交換留學生問題的備忘錄)」, 教育部檔案館: 98-1950-C-103.0009; 「外交部函(關於積極籌備捷克、波蘭等五國交換留學生語言訓練工作給清華大學的通知)」, 教育部檔案館: 98-1950-Y-69.0006.

15) 「清華大學東歐交換生中國語言專修班暫行規程」, 「清華大學東歐交換生中國語言專修班兩年教學計劃(草案)」, 李滔, 위의 책, p.290.

16) 北京大學新聞中心主辦, 「[留學北大60年·發端]新中國來華留學教育的發端: 記“北京大學外國留學生中國語文專修班」, 2010.09.20. (http://news.pku.edu.cn/xwzh/2010-09/20/content_184068.htm [2019.08.07])

학 초청 국가들도 동구권 국가들에서 주변 국가와 아프리카, 남아메리카, 그리고 일부 자본주의 국가들의 유학생들도 중국으로 유학을 오기 시작하였다. 물론 규모는 크지 않았지만 이러한 정책의 변화는 이후 유학생 유치 정책에 기초가 되었다.

2) 덩샤오핑 시대 : ‘평화와 발전’과 자비유학생 교육 시작

두 번째는 개혁개방 초기인 1978년부터 1993년까지의 시기로, 이때에는 중국이 개혁개방 정책을 통하여 사회적 발전을 꾀하던 시기이기도 하기 때문에, 유학생 교육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자비유학생이 증가하기 시작하면서 이들로 인해 수익이 창출되기 시작했는데, 이로 인해 유학생 교육을 수익 사업으로 받아들이기 시작한 것도 이때부터이다.

덩샤오핑 시대에 들어서면서 중국은 ‘평화와 발전’이라는 시대적 규정을 통해, 전쟁은 피할 수 있고, 현재의 국제 질서가 중국의 안보에 크게 위협이 되지 않는다고 평가하였다. 대내적으로는 개혁 개방을 실시하였고, 대외적으로는 독립 자주의 비동맹주의 안보전략을 수립하였다. 당시 중국 지도부는 국가의 발전을 위해서는 평화로운 국제환경 조성이 필수적이라고 인식했으며, 따라서 중국은 국가적 이익을 중시하는 현실주의적 입장이 이데올로기보다 우선한다는 대외정책을 표방하였다. 그리하여 “주변국과의 영토 분쟁에서 평화적인 해결의 원칙을 천명, 타이완 문제에 있어서는 일국양제(一國兩制) 원칙을 제시하며, 무력이 아닌 평화적 해결에 집중하였다”.¹⁷⁾ 이러한 대외관계의 안정에 따라서 유학생 교육도 큰 발전을 보이게 되어, 국가의 비준을 받아 자비 유학생을 받아들이는 고등교육 기관이 늘어나기 시작했으며, 장학금을 지원 받은 유학생들 역시 지속적으로 증가하였다. 유학생의 국적도 다양화되어 기존의 동유럽이나 사회주의 국가 중심에서 확대되었으며, 일본과 미국 등 비사회주의권의 선진국들도 중국을 찾기 시작하였다.

1985년 10월 국가교육위원회, 외교부, 문화부, 공안부 그리고 재정부가 공동으로 「외국유학생 관리 방법」을 발표하여 유학생 교육에 대한 국가적 차원의 정비를 실시하였고, 중국 최초로 자비유학생 제도를 시행하였다. 이로써 대학에 유학생을 모집하고 관리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고 비자 발급 과정을 완화해 주는 등 자비 유학생 유치를 시험적으로 실시했으며, 또한 유학생 교육에 있어서 국가 간 교육, 과학기술, 문화 교류와 경제 협력 강화를 촉진하도록 그 역할을 강조하였다. 물론, 자비유학생이 처음 시작되었기 때문에 인원이 많지는 않았다. 『개혁개방 30년간의 중국 유학생 교육』에 따르면, “1988년을 기준으로 중국에서 공부하는 해외 유학생들은 5,835명으로 문혁 이후 유학생 교육이 다시 시작되던 1977년의 1, 217명에 비해 4.79배가 증가하였으며, 이 중 자비유학생은 1, 239명으로 국가 간 협약 등을 통한 정부 초청유학생이 전체의 78.8%를 차지하였고, 자비유학생의 비율은 22.2%에 불과했다. 자비 유학생 중에서도 대부분은 단기유학생이었다”.¹⁸⁾

1989년 6월 국가교육위원회에서 발표한 「자비 외국 유학생 모집에 관한 규정」(이하 ‘규정’)

17) 김예경, 위의 논문, pp.424-425.

18) 於富增, 『改革開放30年的來華留學生教育』, 北京語言文化大學出版社, 2009, p.56.

은 기존 중국의 유학정책의 전환점이 되는 정책으로, 기존에 국가 간 협약을 통한 상호 파견 및 제3세계 국가들에 대한 원조 차원의 유학 정책에서 자비유학 중심으로 방향을 전환한 것이다. 기존에는 부분적으로 허용되던 자비유학생 유치에 관한 심사 권한을 성급 교육행정기관에 부여함으로써 유학생을 받을 수 있는 대학의 범위를 크게 확대시켰고, 동시에 대학의 유학생 유치 권한을 명확히 함으로써 대학이 주체적으로 해외 유학생 유치를 위한 글로벌 경쟁에 참여케 하여 대학의 유학생 교육 발전에 매우 유리한 환경이 조성되었다.¹⁹⁾ 대학 입장에서 보면 개혁개방 이전에는 자체적인 유학생 정책 수립에 대한 권한이 없었으며, 국가에서 추진하는 국가 간 교류 사업을 지원하는 수준에 머물러 있었다. 그러나 유학생 유치가 대학 차원에서 가능하게 됨에 따라 대학이 유학생 교육의 주체로 떠오르고²⁰⁾, 유학생에 대한 유치, 교육 등의 방향을 자체적으로 수립하여 추진할 수 있게 되었다.

이러한 정부 정책에 힘입어 1992년 기준, 유학생 수도 대폭 증가하여 1만 4천여 명에 이르게 되고, 한·중 수교로 인해 한국 학생들의 중국 유학이 시작되면서 중국의 유학생 교육의 국제화와 양적 성장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된다. 「2018년 유학생 통계」에 따르면, 중국의 해외 유학생 수는 196개국의 492,185명인데, 이 중 한국 학생은 50,600명으로 전체의 10.28%로, 가장 많은 인원을 차지하고 있다.²¹⁾

3) 장쩌민·후진타오 시대 : ‘신 안보관’과 자비유학생 교육의 발전

장쩌민과 후진타오 시대는 1993년부터 2013년까지로, 덩샤오핑의 ‘평화 발전’의 시대적 정신을 계승하였다. 1990년대 중반 이후 국제 관계의 새로운 변화에 따라 새로운 안보 위협이 대두되면서 중국은 ‘신 안보관’을 제기하였는데, 이는 1995년 장쩌민이 처음 언급하고 1998년 중국의 국방백서를 통해 확정된 개념으로, 전통적 안보 개념이 ‘냉전적 사유’에 근거한 국제 정치적 접근이었다면, 군사 안보 이외에도 정치, 경제, 사회 등 다양한 영역에서 국제사회의 공동이익에 대한 국제협력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신 안보관’의 핵심 개념은 ‘상호 신뢰’, ‘상호 이익’, ‘평등’, ‘협력’으로 요약할 수 있다. 이처럼 “각국이 공동의 이익을 중시하는 새로운 시대의 대외 인식이 자리 잡으면서, 전통적으로 안보 위협국과의 국제협력은 제로섬의 영역으로 양립하기 어려운 개념으로 인식되어 왔으나, 새로운 안보는 적극적 다자주의적 입장에서 국제협력이 공존하면서 상호 보완하는 개념으로 새롭게 인식되었다.”²²⁾

이와 같이 국가 간의 ‘이익’을 위한 국제협력의 강화는 유학생 정책에도 많은 영향을 끼쳐 1989년 발표된 ‘규정’에 제도적 근거를 제공해 주면서, 자비유학생을 중심으로 하는 유학생 유치가 유학생 교육의 중심으로 자리 잡게 된다. 이에 따라 중국의 유학생 교육을 제도적으

19) 「關於招收自費外國來華留學生的有關規定」, 張寶存, 위의 논문, 2018, p.66.

20) 1990년부터 자비유학생 인원이 정부초청 장학생을 넘어서기 시작한다. 1991년에는 유학생 수가 처음으로 1만 명을 넘어섰으며, 자비유학생이 유학생 교육의 주된 대상으로 떠오르기 시작했다. 陳強, 「改革開放30年來華留學研究生教育的回顧與思考」, 『學位與研究生教育』, 第6期, 2008, p.57.

21) 「2018年來華留學統計」, 中國教育部, 2019.4.12. (http://www.moe.gov.cn/jyb_xwfb/gzdt_gzdt/s5987/201904/t20190412_377692.html [2019.08.09])

22) 김예경, 위의 논문, pp.425-426.

로 뒷받침하기 위한 제도를 역시 정비되기 시작한다. 즉 「중국 교육 개혁과 발전 강령」, 「중화인민공화국 교육법」, 「중화인민공화국 고등교육법」 등이 제정되고, 유학생 정책이 새로운 시대의 수요에 발맞추어 지속적으로 개선되어 갔다. 이 시기 유학생 정책의 주된 내용은 유학생 모집의 심사 권한, 유학생 모집 및 자체 관리, 경비 관리 방법, 중국 정부장학금 심사 등의 권한이 대학에 이양된다. 이러한 정책의 조정을 통해 대학이 유학생 유치와 교육의 주체로 떠올랐으며, 유학생 교육의 대상도 자비유학생이 주류를 이루게 된다. 1999년 통계를 살펴보면, “중국에 유학하는 외국 학생은 44,711명으로 1988년 보다 무려 7.66배가 증가했으며 이 중 자비유학생은 39,500명으로, 1990년 최초로 정부초청 장학생을 넘어섰고, 10년 만에 전체 유학생의 88.3%에 이를 정도의 빠른 성장세를 보였다.”²³⁾

2004년부터는 외국인 유학생 규모를 확대하기 위한 정책을 본격적으로 도입하는데, 교육부는 2004년 6월, ‘외국인 유학생 조건부 중국어 능력시험 면제 시의 입학 규정’²⁴⁾(이하 ‘중국어 시험 면제 규정’)을 제정하여 중국어로 고등학교 과정을 마친 외국인 학생의 유학 신청 과정을 간소화하였고,²⁵⁾ 2005년 10월에는 병역 의무가 있는 국가에서 온 외국인 유학생에게 특별히 학적을 보류하여 자국에서 병역을 마친 후 다시 공부할 수 있도록 ‘외국인 유학생의 학적 보류 시 군 복무에 관한 통지’²⁶⁾(이하 ‘학적보류통지’)를 제정하였다. 이러한 중국 정부의 정책은 다자주의에 입각한 국제협력의 분위기 속에서 다른 국가의 법률을 존중하는 분위기가 확산되어 가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2010년 9월에는 ‘중국유학계획(2010-2020)’²⁷⁾을 발표하여 2020년까지 해외유학생 50만 명을 유치하여 아시아 최대의 유학 대상국이 되겠다는 목표를 제시하였는데, 이는 같은 해 7월에 당 중앙과 국무원이 발표한 「국가 중장기 교육개혁과 발전 계획 요강(2010-2020年)」²⁸⁾에 기반을 두고 있는 것으로서, 교육 분야 국제 교류와 협력을 강화하여 중국 교육의 국제화 수준을 향상 시키고, “해외 유학생 규모를 더욱 확대하기 위해 중국유학계획을 시행한다.”²⁹⁾는 국가 차원의 정책 방향에 의한 것이다. 이러한 정책 방향과 실행 계획으로서의 ‘중국유학계획’은 유학생 유치 목표가 포함된 최초의 정책으로 중국 교육의 국제화 수준 향상, 유학생 교육

23) 「中國教育改革和發展綱要」, 「中華人民共和國教育法」, 「中華人民共和國高等教育法」, 於富增, 위의 책 (2009), p.87.

24) 「關於外國學生有條件免除漢語水平考試入學的規定」, 人民網, 2004.06.07. (<http://www.people.com.cn/GB/shizheng/1026/2549769.html> [2019.08.07])

25) 「免除韓語考試規定」에서는 일부 국가에서는 중등교육과정 수업을 중국어로 하고 있어 이들 국가 출신의 중국어 수준은 대학에서 외국인에게 요구하는 중국어 실력을 이미 넘어서 있음이 고려되었다고 설명하고 있고, 「學籍保留通知」에서 일부 국가에서는 법률에 의해 일정 기간을 군대에 복무해야 하는데, 특히 한국 등의 출신 국가 유학생들이 복역기간 학적을 유지해 줄 것에 대한 요청이 고려되었음을 설명하고 있다.

26) 「關於來華留學生保留學籍服役有關事宜的通知」, 中國教育部, 2005.10.08. (http://www.moe.gov.cn/s78/A20/gjs_left/moe_850/201005/t20100512_87583.html [2019.08.07])

27) 「留學中國計劃(2010-2020)」, 中央政府門戶網, 2010.9.28. (http://www.gov.cn/zwggk/2010-09/28/content_1711971.htm [2019.08.08])

28) 「國家中長期教育改革和發展規劃綱要(2010-2020年)」, 中央政府門戶網站, 2010.07.29. (http://www.gov.cn/jrzq/2010-07/29/content_1667143.htm [2019.08.08])

29) 「教育部官員解讀‘留學中國計劃」, 人民網, 2010.9.30. (<http://edu.people.com.cn/GB/12868993.html> [2019.08.10])

의 질적 향상 등 교육 내실화에 대한 내용도 포함하고는 있으나, 이는 목표로 제시한 ‘2020년까지 아시아 최대의 유학 대상국’ 건설이라는 목표를 위한 방법론적인 내용으로, 중국의 해외 유학생 정책이 질적 향상보다는 ‘세계일류대학건설’, ‘50만 명 유치’라는 가시적 실적 증가에 더욱 집중하고 있음을 보여 주고 있는 것이다.

중국 교육부의 자료에 따르면, 이러한 중국 정부의 적극적인 유학생 유치 정책에 힘입어 ‘중국유학계획’ 발표 전인 2009년 238,184명이던 유학생 수가 2012년에는 328,330명으로 3년 만에 72.54%가 증가했고, 자비유학생 수도 219,939명에서 299,562명으로 73.42%가 증가했다. 특기할 만한 것은 자비 유학생의 비율이 감소하고 정부초청 장학생 비율이 늘어난 것인데, 자비유학생 비율은 92.34%에서 91.24%로 감소한 반면, 정부초청 장학생 수는 18, 245명에서 28,768명으로 증가되었으며, 그 비율 또한 7.66%에서 8.76%로 증가하여³⁰⁾ 중국 정부에서 유학생 유치를 위해 1만 명 이상의 학생에게 장학금을 지급한 것으로 이해된다.

4) 시진핑 시대 : ‘대국관계 신모델’과 ‘일대일로’ 유학생 교육

2013년부터 시작된 시진핑 시대에도 덩샤오핑의 ‘평화발전’의 시대적 정신을 계승하였다. 그러나 전 시대보다 더 큰 자신감을 가지고 G2에 걸맞는 국제적 책임과 역할을 추구하고자 했다. 이를 위해서는 대미관계의 안정적 유지가 필수적인데, 이 때문에 대외적으로는 ‘중국의 꿈(中國夢)’이라는 비전을 제시하면서 대내적으로는 국민을 통합하고, ‘대국관계의 신모델(新型大國關係)’이라는 미중 대국 외교의 틀을 제시함으로써 양국 관계의 안정화를 꾀하고, 이와 함께 ‘핵심 이익(核心利益)’이라는 원칙에 대해서 포기하지 않으려는 강한 의지를 나타내 보이고 있다.³¹⁾ 이중 특히 대국관계의 신모델은 세계정세에 대한 시진핑의 분석을 바탕으로 제기한 중요한 외교전략 중 하나로, 협력과 윈윈을 핵심 가치로 삼고 있다.³²⁾ 2016년 중공 18대 외교정책에 관한 건의 중에서도 “우리는 선진국과의 관계 개선에 나서야 하며, 협력 분야를 확대하고, 분쟁을 슬기롭게 해결하며, 대국관계 신모델의 장기적이고 안정적이며 건전한 발전을 촉진해야 한다”³³⁾고 주장하여 시진핑 시기 주된 대외, 특히 대미관계의 전략으로 자리 잡았다.

대국관계 신모델이 대미관계의 주요 전략이라면, ‘일대일로(一帶一路)’ 구상은 아시아와 아

30) 「2009年全國來華留學生突破23萬」, 中國教育部, 2010.03.22. (http://www.moe.gov.cn/jyb_xwfb/gzdt_gzdt/moe_1485/201005/t20100518_88315.html, [2019.08.09.]) ; 「2012年全國來華留學生簡明統計報告」, 中國教育部, 2013.03.07. (http://www.moe.gov.cn/jyb_xwfb/gzdt_gzdt/s5987/201303/t20130307_148379.html [2019.08.09])

31) 박병광, 「시진핑 지도부의 등장과 중국의 대외정책-지속과 변화의 측면을 중심으로」, 『전략연구』, 통권 제60호, 2013. p.154. 시진핑 시대 대외정책에 관한 기본적인 기조는 양제츠 외교담당 국무위원의 다음 글 속에 잘 나타나 있다. 楊潔篪, 「新形势下中国外交理论和时间创新」, 『求实』, 16期, 2013年.

32) 시진핑은 또한 국제사회가 제로섬 게임에서 벗어나야 공존의 길로 나가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며 ‘인류공동운명체’를 주창했다. 2015년 9월과 2017년 1월 2차례의 UN 연설에서도 ‘인류공동운명체’를 언급했으며, 2018년에는 헌법에 기재하기도 했다. (리단, 「중국외교 3.0: 시진핑 시기의 변화와 지속」, 『중국학』, 제65집, 2018. p.389)

33) 「综述：习近平的“新型大国关系”外交战略是这样炼成的」, 中国日报(中文网), 2016.02.13. (http://china.chinadaily.com.cn/2016-02/13/content_23463694.htm [2019.08.10])

프리카, 유럽의 일부까지를 아우르는 전략이다. ‘일대일로’ 구상은 2013년 시진핑이 중앙아시아³⁴⁾와 동남아시아를 순방하면서 주창한 중국의 대외정책으로 ‘실크로드 경제 벨트(絲綢之路經濟帶)’와 ‘21세기 해상 실크로드(21世紀海上絲綢之路)’의 약칭이다. “이 지역 국가들과 중국이 기존에 가지고 있던 다양한 기제에 기초하여, 지역 협력의 플랫폼으로 확대 이용하는 것으로, 옛 실크로드의 역사적 기호를 차용하여 평화적인 경제협력 파트너십 구축을 통해 정치적 신뢰, 경제적 융합, 문화적 포용의 이익공동체, 운명공동체 그리고 책임공동체를 함께 만들어보자는 것이다.”³⁵⁾ 이 구상은 기본적으로 다원적 국가 전략에 기초하고 있으며, 국가들 간의 에너지 안정, 지정학적 정치·군사적 안정, 국제협력, 문화 부흥, 지역적 차별의 축소 등 전략적이고 종합적인 접근을 시도하고 있다.

2013년 9월 시진핑 주석이 ‘일대일로’ 구상을 제시한 이후, 11월에 열린 ‘중국공산당 제18기 중앙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에서 ‘일대일로’ 건설을 중점 추진 사항으로 공식화 하였고, 이후 ‘일대일로’ 건설을 위한 각종 정책들이 시행되었다. 2015년 2월에는 ‘일대일로’ 건설 추진을 위한 공작회의를 베이징에서 갖고, ‘국가 일대일로 건설 공작 영도소조’를 설립하면서 사업 추진을 위한 조직을 구축하게 되었다.³⁶⁾ 아울러, 2015년 3월 국가발전개혁위원회, 외교부, 상무부가 공동으로 ‘실크로드 경제벨트 및 21세기 해상 실크로드 공동 건설을 위한 비전 및 행동’(이하 ‘비전과 행동(願景與行動)’)을 발표하여, ‘일대일로’의 구체적인 정책 집행 방향을 보여주었다. 이 정책에는 다양한 분야의 내용을 담고 있는데, 그 중 교육 분야에 있어서 “상호 유학생을 확대하고, 매년 ‘일대일로’ 선상 국가의 학생 1만 명에게 정부 장학금을 지급 하겠다”³⁷⁾는 것을 최초로 선언함으로써 국가 차원에서 이들 국가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대규모 유학생을 유치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한 것이다.

‘일대일로’ 구상이 교육, 특히 유학분야까지 확대됨에 따라 이러한 전략에 발맞춰 2016년 4월, 중공중앙판공청과 국무원판공청에는 ‘신시기 교육의 대외 개방 활동에 관한 약간의 의견’(이하 ‘의견’)을 발표하여 교육 분야의 대외 개방을 강조한다. 특히, 유학사업의 발전을 가속화 하고 유학생 교육의 질을 높일 것을 강조하고 있으며, “‘실크로드 정부 장학금’ 설립하여 일대일로 선상 국가의 1만 명의 학생에게 중국에서 공부하고 연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 하겠다”³⁸⁾고 밝혔다. ‘의견’에서 밝힌 유학생 정책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은 2016년 7월 소관 부서인 교육부에서 발표한 ‘‘일대일로’ 교육 행동 건설 추진’(이하 ‘행동’)에서 더욱 구체화 되었다. ³⁹⁾

34) 「習近平呼籲共建“絲綢之路經濟帶”(全文)」, 新浪新聞, 2013.09.07. (<http://news.sina.com.cn/c/2013-09-07/134628157661.shtml>) [2019.08.05]

35) 黨建偉, 「絲綢之路經濟帶建設對沿線重要節點城市未來發展的影響」, 『大陸橋視野』, 第5期, 2014.

36) 「一帶一路領導班子“一正四副”名單首曝光」, 鳳凰網, 2015.04.05. (http://news.ifeng.com/a/20150405/43488218_0.shtml) [2019.08.05]. 國家推進“一帶一路”建設工作領導小組辦公室 홈페이지 참조(<https://www.yidaiyilu.gov.cn>)

37) “擴大相互間留學生規模, 開展合作辦學, 中國每年向沿線國家提供1萬個政府獎學金名額。”(“一帶一路”具體方案出爐 中國四大區域全面開放」, 鳳凰財經, 2015.03.28, http://finance.ifeng.com/a/20150328/13590437_0.shtml) [2019.08.05]

38) “設立“絲綢之路”中國政府獎學金, 每年資助1萬名沿線國家新生來華學習或研修。”「中共中央辦公廳、國務院辦公廳印發《關於做好新時期教育對外開放工作的若干意見》」, 中央政府門戶網站, 2016.04.29. (http://www.gov.cn/home/2016-04/29/content_5069311.htm) [2019.08.05]

2019년 1월, 전국 교육 공작 회의에 참석한 교육부 부장 천바오성의 보고에 의하면 교육부가 “「행동」을 실행하면서 교육개방의 확대에 전력하여, 선상 24개 국가와 학력과 학위 상호 인정에 관한 협약을 체결했고, ‘일대일로’ 65개 국가 중 52개국에 140개소의 공자아카데미와 135개소의 공자교실이 설립”⁴⁰⁾했다고 밝히고 있어, 2016년 「행동」을 발표하고 3년 만에 매우 빠른 성과를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일대일로’ 선상 국가 유학생 정책은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중앙정부 차원의 범 부처 조직인 ‘국가 일대일로 건설 공작 추진 영도 소조 판공실’을 컨트롤타워로, 중공중앙 판공청과 국무원 판공청에서 유학생 유치에 관한 거시방향을 설정한 후, 교육부에서 이를 구체화하는 형식으로 추진되고 있다. 지방정부도 중앙정부의 이러한 정책 방향에 부응하여 지방 정부의 상황에 맞는 ‘일대일로’ 장학금 관리방안을 시행하고 있다. 베이징시를 예로 들면, 2016년 11월 「베이징시 외국 유학생 ‘일대일로’ 장학금 항목 관리 변법(시행)」(이하 「베이징 관리 방법」)을 공포하여 “유학생 사업을 가속화 시키다”는 전국 유학생공작회의의 정신의 구현과 국가의 ‘일대일로’ 발전전략 ……(등)을 실천하기 위해 ……베이징시 외국인유학생 장학금을 기초로 ‘일대일로’ 장학금을 신설한다.”⁴¹⁾고 밝히고 있다. 이 「베이징 관리 방법」에 따르면, ‘일대일로’ 장학금은 2016년부터 매년 32개의 프로젝트를 새롭게 추가하며, 수업과정을 모두 이수하면 종료된다. 프로젝트 당 매년 25만 위안을 지급하는데, 학비는 매년 박사과정 40,000위안, 석사과정 30,000위안, 본과생 20,000위안을 지급하되, 실제 학비 기준에 따라 차등 지급된다.

이와 같이 시진핑 시대에는 ‘일대일로’라는 국가의 대외정책을 중앙정부의 각 부서에서 역할에 따라 나누어 실행하고 있으며, 교육부는 ‘일대일로’에서 주창한 바와 같이 교육의 대외 교류와 유학생 교육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정부장학금 제도를 적극 활용하고 있다. 중앙 정부의 정책은 지방 정부와 대학에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말단의 대학과 지방 정부가 실질적인 사업을 수행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이러한 중국 정부의 노력에 힘입어 2013년

39) 「행동」에 따르면 구체적으로 “‘실크로드’ 유학추진 계획을 실행한다. ‘실크로드’ 중국 정부장학금을 설립하여 선상 국가의 전문 육성분야 우수 인재와 우수 기능 인재를 육성한다. 해외 유학생 교육의 수준을 전면적으로 제고하여 선상 국가의 학생들에게 환영받는 유학 대상국으로 만들겠다. ……대학과 직업대학은 각자의 발전전략에 기반 하여 해당 지역의 ‘일대일로’ 계획 공동 건설에 참여하며, 선상의 여러 국가들과 다양한 형태의 교류와 협력을 전개하여 현대적 대학 제도의 개혁, 창의인재 육성 모델, 해외 유학생 교육의 수준 향상, 해외 대학 공동설립의 업그레이드, 기업성장 지원 등을 집중 추진하여 각 분야의 업무가 조화롭게 발전해 나가도록 해야 한다. ……매년 선상 국가 새로운 학생 1만 명이 중국에 와서 공부하고 연수할 수 있도록 비용을 지원하겠다.”고 밝히고 있다.(“實施‘絲綢之路’留學推進計劃。設立‘絲綢之路’中國政府獎學金，為沿線各國專項培養行業領軍人才和優秀技能人才。全面提升來華留學人才培養質量，把中國打造成爲深受沿線各國學子歡迎的留學目的地國。…高等學校、職業院校要立足各自發展戰略和本地區參與共建‘一帶一路’規劃，與沿線各國開展形式多樣的合作交流，重點做好完善現代大學制度、創新人才培養模式、提升來華留學質量、優化境外合作辦學、助推企業成長等各項工作的協同發展。…每年資助 1 萬名沿線國家新生來華學習或研修。”)『推進共建“一帶一路”教育行動』，中國教育部，2016.7.15. (http://www.moe.gov.cn/srcsite/A20/s7068/201608/t20160811_274679.html [2019.08.04])

40) 陳寶生，『落實 落實 在落實——2019年全國教育工作會議上的講話』，中國教育部，2019.01.18. (http://www.moe.gov.cn/jyb_xwfb/moe_176/201901/t20190129_368518.html [2019.08.04])

41) 關於實施全國留學工作會議關於“加快留學生事業”精神，落實國家“一帶一路”發展戰略…，在北京市外國留學生獎學金基礎上特設立“一帶一路”獎學金。(「北京市外國留學生“一帶一路”獎學金項目管理辦法(試行)」，一帶一路網，2016.11.18. (<https://www.yidaiyilu.gov.cn/zchj/zcfg/26577.htm> [2019.08.05])

시진핑 정부가 들어선 2013년 356,499명이던 중국의 유학생 수⁴²⁾는 2018년 482,185명으로 무려 35.25%가 증가하였다.

3. 나가는 말

이제까지 중국의 유학생 정책을 대외정책과 연계하여 살펴보았다. 중국은 신중국 수립 직후부터 자본주의와의 안보경쟁 속에서 사회주의 국가들과의 국제협력을 매우 중시했으며 이들 국가와의 유학생 교류는 사회주의 진영의 유대와 결속을 강화시켜 주는 중요한 수단 중 하나였다. 개혁개방 이전 중국은 국가 간 협정에 의해 학생을 파견하고, 상대 국가에서 학생들의 교육을 지원하는 교환학생 중심의 유학생 교육이 이루어졌다. 덩샤오핑 시대의 개막과 안보환경의 변화 그리고 개혁개방의 확대에 따라 ‘전쟁불가’가 아닌 ‘전쟁가피론’과 ‘평화와 발전’이 시대의 흐름으로 자리 잡게 되었다. 이에 따라 유학생도 대외 개방이 이루어지기 시작했고, 지방정부와 대학에 일부 권한을 위임하여 자비유학생을 맞이하는 시대가 열리게 되었다. 장쩌민·후진타오 시대에는 세계 각국이 이익을 중시하고 다자주의적 국제협력을 강조하는 안보관 즉, ‘신안보관’이 대외정책의 주된 방향으로 자리 잡았다. 이러한 배경 하에 유학생 정책은 자비유학생 교육을 확대시키는 방향으로 나아갔고, 특히 유학생 유치 권한을 부여 받은 중국의 대학들은 이제 유학생을 교육의 대상이자 교육서비스의 소비자로서 인식하고 자비유학생 유치에 경쟁적으로 뛰어들게 되었다. 시진핑 시대에는 ‘일대일로’ 구상에 기반 한 유학생 정책을 추진하며, 옛 실크로드 국가와의 경제, 문화, 정치적 교류를 강화하면서 동시에 교육 분야의 교류협력을 강화시켜나가고 있다. 물론 이는 교육과 문화교류에 만 국한되는 것은 아니다. 세계적인 유학생 유치 경쟁 속에서 자국 교육에 대한 긍정적 이미지를 제고함으로써 새로운 유학생 유치 공급원을 확보하려는 포석으로도 이해된다.

주목할 만한 것은 중국 정부에서 유학생 교육을 정책을 추진할 때 늘 정부장학금을 동시에 추진하고 있다는 것이다. 건국 초기 국가 간 협정에 의한 유학생 상호 파견이나, 시진핑 시대의 ‘일대일로’ 정부장학금이 대표적인 예이다. 특히 ‘일대일로’ 구상과 더불어 선상 국가의 학생 1만 명에게 일대일로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는데, 장학금의 명칭을 ‘일대일로’ 장학금라고 명확히 함으로써 이 장학금을 수혜 받은 해외 학생들에게 ‘일대일로’ 정책을 홍보함과 동시에 ‘일대일로’에 대한 이해를 확산시키고 우호적인 인사로 성장시켜 나가고 있다. 장학금의 관리는 국가유학기금관리위원회에서 담당하고 있는데, 이 기구 홈페이지 소개란에 “국가 장학금을 법률과 법규 그리고 관련 방침 및 정책에 따라 관리하고 사용한다”⁴³⁾고 밝히고 있어 국가의 대외 정책 기조에 따라 장학금을 전략적으로 집행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한국도 그동안 극한 이념 대립의 시대를 경험했으며, 최근 40년은 ‘민족주의’에서 ‘글로벌

42) 「2013年度我国留学人员情况」, 中國教育部, 2014.02.21. (http://www.moe.gov.cn/jyb_xwfb/gzdt_gzdt/s5987/201402/t20140221_164235.html [2019.09.16])

43) “國家留學基金管理委員會根據國家法律、法規和有關方針政策管理、使用國家留學基金。” (국가유학기금관리위원회, <https://www.csc.edu.cn/about> [2019.08.04])

사회'로 이념이 전환 되고, 해외 교육기관의 대학평가 활성화로 인한 정부 경각심 강화, 저출산에 따른 학령인구 감소 등 우리 사회의 구조변화와 국제적 흐름에 맞물려 유학생 유치 정책이 강조되고 있다.⁴⁴⁾ 이에 'Study Korea Project'(교육부, 2004), '외국인 유학생 유치 관리 인증제(IEQAS: International Education Quality Assurance System)(교육부, 2011)' 시행, 'Study Korea 2020'(교육부, 2012) 그리고 '정부초청장학생(GKS: Global Korea Scholarship)' 사업규모 확대(교육부, 2012) 등 여러 차례 중요한 발표를 통해 유학생 유치와 유학생 교육의 내실화를 천명하고 있다. 또한 교육부 국립국제교육원(한국유학종합시스템, studyinkorea.go.kr)에서 정부초청장학생 및 유학생 유치 업무를 총괄함으로써 일관성 있는 장학금 집행을 추진하고 있다.

국가 대외정책과의 연계라는 관점에서 볼 때, 한국의 유학생 정책은 형식적으로는 비교적 일관된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 현 정부의 주요 대외정책인 '신북방정책'과 '신남방정책'의 경우, 이를 운영하기 위해 대통령 직속의 '북방경제협력위원회'와 '신남방정책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있는데, 위상이 높은 만큼 여러 부처에서 공동으로 정책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다. 2019년 3월에 개최된 북방경제협력위원회 제4차 회의에서는 12개 관계부처가 추진계획을 발표했는데, 이 중 교육부는 우수 유학생 유치 등을 목표를 제시했다. 이를 위해 '중앙아시아대학생초청연수' 장학금을 신설하고 해당 국가 학생 80명을 초청하여 5주간의 연수프로그램을 운영키로 했다.⁴⁵⁾ 신남방정책도 해당지역과의 인적 자원 역량 강화를 위해 2015년부터 실시되었던 'ASEAN국가이공계대학생초청연수'의 규모를 120명에서 200명으로 확대하는 등⁴⁶⁾ 국가의 대외정책의 방향을 기초로 하여 각 부서가 일관된 정책방향을 유지 하고 있으며 교육부 또한 이에 부합하는 유학생 정책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내용적 측면에서 본다면, 여러 가지 부족한 부분이 보인다. 먼저, 지원되는 국제장학프로그램(GKS)이 방향성과 일관성 없는 명칭으로 불리고 있다는 점이다. 이들 GKS는 신북방정책과 신남방정책의 성공적 수행과 이를 통한 유학생 유치 등을 목적으로 지급되고 운영되고 있으나 이 정책과 관계없는 명칭으로 불리고 있으며, 신북방정책과 신남방정책과 관련된 부연 설명은 어디에도 보이지 않는다.⁴⁷⁾ 또한 이들 장학금은 기존 장학금에 정원을 추가하거나 기존 장학프로그램의 작명 방법을 그대로 유지하여 신설한 장학금으로서, 수혜를 받는 학생들 또한 어떠한 명목의 장학금을 받았는지를 명확히 이해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는 중국이 '일대일로' 구상을 추진하면서 '일대일로 장학금'으로 명명하고 이를 지급함으로써 '일대일로' 구상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켜 나가는 것과는 큰 차이를 보인다. 두 번째는 정부초청장학생 규모가 가지는 한계이다. 중국의 '일대일로' 장학금은 1만 명 규모로 선상 국가 65개국에서 각각 153명을 초청할 수 있는 데 반해, 한국은 전체가 280명으로 소기의 성과를 달

44) 김한나·우한솔·이승호, 「한중일 3국의 외국인 유학생 유치 정책 비교 연구」, 『아시아교육연구』, 17권 4호, 2016. p.317.

45) 북방경제협력위원회, 「2019년도 중앙행정기관 신북방정책 추진계획」, 2019.03.27, p.94.

46) 신남방정책특별위원회, 「신남방정책 추진전략」, II-1-③, 2018.11.08.

47) '중앙아시아대학생초청연수'를 소개하는 내용에는 “국가 간의 우호 증진을 도모하여 상호 협력과 공동이익을 추구”라는 다소 원론적인 내용만 기재되어 있다. 「중앙아시아 대학생초청연수」, 국립국제교육원, 2019.04.22. (<http://www.niied.go.kr/user/nd98903.do> [2019.09.17])

성하기에는 한계가 분명해 보인다. 물론, 국가의 경제규모와 예산 등 감안해야 것이 많이 있겠으나, 국제사회가 이미 유학생 유치 경쟁전에 들어간 현실에 비추어 해당 국가의 입장에서 중국의 지원이 훨씬 커 보일 것은 당연한 이치이다. 지원 규모(인원)를 일정 수준 이상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마지막으로 지원 프로그램 가지는 한계이다. 중국의 ‘일대일로’ 장학금은 단기 연수에서부터 학위과정 까지 다양한 분야에서 대규모 지원을 하고 있는데 반해, 한국은 5주의 연수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그치고 있다. 재정을 조금 더 투입하여 다양한 교육과정 프로그램을 운영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국가차원의 일관된 정책 기조와 이를 바탕으로 한 유학생 정책 그리고 이를 뒷받침하는 재정지원(장학금)이 절실히 보인다.

【참고문헌】

- 駱亦粟, 『在風起雲湧的年代裏(1949-1989)』, 新華出版社, 2011.
- 李 滔, 『中華留學教育史實錄-1949年以後』, 高等教育出版社, 2000.
- 於富增, 『改革開放30年的來華留學生教育』, 北京語言文化大學出版社, 2009.
- 이태환, 『중국의 국내정치와 대외정책』, 한울아카데미, 2006.
- 耿 虎, 「來華留學生教育分期及其相關問題探析」, 『高教探索』, 第4期, 2010.
- , 「來華留學生教育研究的回顧與前瞻」, 『江蘇高教』, 第6期, 2010.
- 黨建偉, 「絲綢之路經濟帶建設對沿線重要節點城市未來發展的影響」, 『大陸橋視野』, 第5期, 2014.
- 鸞鳳池·孫 偉, 「“一帶一路”國家來華留學生教育的意義、問題及對策」, 『江蘇師範大學學報』, 第1期, 2018.
- 劉 慧, 「來華留學生獎學金制度現狀分析」, 『高校教育管理』, 第4期, 2008.
- 李寶貴·尚笑可, 「“一帶一路”背景下來華留學教育新使命」, 『現代教育管理』, 第11期, 2017.
- 李 鵬, 「新中國來華留學生教育的發端：緣起、進程與意義」, 『華東師範大學學報』, 第3期, 2016.
- 蒙有華, 「當前我國留學教育的現狀、問題及解決思路」, 『當代教育論壇』, 第23期, 2005.
- 楊潔麓, 「新形势下中国外交理论和时间创新」, 『求实』, 16期, 2013.
- 王留栓, 「再論我國大力發展來華留學生教育」, 『當代教育論壇』, 第2期, 2008.
- 陳 宇·曲鐵華, 「我國來華留學生教育政策變遷的路徑與特點——基於1950~2012年政策文本的分析思考」, 『人民論壇·學術前沿』, 第24期, 2016.
- 夏 青, 「來華留學生中國政府獎學金制度現狀及貨幣化改革刍議」, 『科技通報』, 第3期, 2011.
- 리 단, 「중국의외교 3.0: 시진핑 시기의 변화와 지속」, 『중국학』, 제65집, 2019.
- 김예경, 「중국의 안전보장제도와 정책」, 함택영·박준영 편, 『안전보장의 국제정치학』, 사회평론아카데미, 2015.
- 김한나·우한솔·이승호, 「한중일 3국의 외국인 유학생 유치 정책 비교 연구」, 『아시아교육연구』, 17권 4호, 2016.
- 박병광, 「시진핑 지도부의 등장과 중국의 대외정책 - 지속과 변화의 측면을 중심으로」, 『전략연구』, 제60호, 2013.
- 송광훈·황지유, 「한중 유학생교육의 문제점 및 발전전략 고찰」, 『중국인문과학』, 제52집, 2012.
- 中国日报(中文网) (<http://china.chinadaily.com.cn>) [2019.08.10]
- 中国教育部 (<http://www.moe.gov.cn>) [2019.09.16]
- 國家留學網 (<http://www.csc.edu.cn>) [2019.08.04]

- 留學中國 (<http://www.campuschina.org>) [2019.08.05]
中國教育國際交流協會 (<http://www.ceaie.edu.cn>) [2019.08.08]
中央政府門戶網 (<http://www.gov.cn>) [2019.08.08]
人民網 (<http://edu.people.com.cn>) [2019.08.10]
新華網 (<http://www.xinhuanet.com>) [2019.09.16]
北京大學 (<https://pku.edu.cn>) [2019.08.07]
光明日報 (<http://epaper.gmw.cn>) [2019.08.10]
鳳凰網 (<http://news.ifeng.com>) [2019.08.05]
鳳凰財經 (<http://finance.ifeng.com>) [2019.08.05]
新浪新聞 (<http://news.sina.com.cn>) [2019.08.05]
國家推進“一帶一路”建設工作領導小組辦公室 (<https://www.yidaiyilu.gov.cn>) [2019.08.05]
국립국제교육원 (<http://www.niied.go.kr>) [2019.09.17]
Institute of International Education, Inc. (<https://www.iie.org>) [2019.07.20]

【논문초록】

키워드 Key Words	중문	中国, 外交政策, 留学生政策, 留学生教育, 改革开放, 邓小平时代, 江泽民·胡锦涛时代, 习近平时代, “一带一路”, 新北方政策, 新南方政策		
	영문	China, Foreign Policy, International Student Policy, International Student Education, Reform and Opening, Deng Xiaoping Era, Jiang Zemin and Hu Jintao Era, Xi Jinping Era, “One Belt One Road”, New North Policy, New South Policy.		
<div><div>A Study on Foreign Policy and International Student Policy in China</div><div>Hwang, Ji-You / Kim, Byung-Cheol</div><div>A Study on Foreign Policy and International Student Policy in China This paper examines the relationship between foreign policy and international student policy in China. In particular, the special focus is placed on China's foreign policy and international student policy with “One Belt One Road(一帶一路)” initiative announced by Xi Jinping(习近平) as President of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in 2013. Firstly, we look at the major foreign issues and its policy and international student policy as one of its ‘components’, which has not been analyzed in China and abroad. From the initial period of new China, through the reform and opening-up period, to the Deng Xiaoping(邓小平) era, Jiang Zemin(江泽民), Hu Jintao(胡锦涛) era, and Xi Jinping era are summarized. Through this study, the goal of China's international student policy by period are identified, and the conceptual flow leading to the “One Belt One Road” policy as one of the main foreign strategies of Xi Jinping era and international student policy is examined. Lastly, we compare international student policy in China with foreign polict such as “New North Policy” and “New South Policy” of Moon Jae-in government in Korea for policy implications.</div></div>				
저 자 인적사항	성 명	황지유 / 黃智裕 / Hwang, Ji-You		김병철 / 金炳澈 / Kim, Byung-Cheol
	소 속	동신대학교 사회문화대학 국제어문학부 중국어학전공		中國人民大學 勞動人事學院 社會保障學科
	Em@il	jyhwang@dsu.ac.kr		jinbingche@ruc.edu.cn
논 문 작성일시	투 고 일	2019년 08월 21일		심 사 일 2019년 08월 25일
	수 정 일	2019년 09월 09일		게재확정일 2019년 09월 17일